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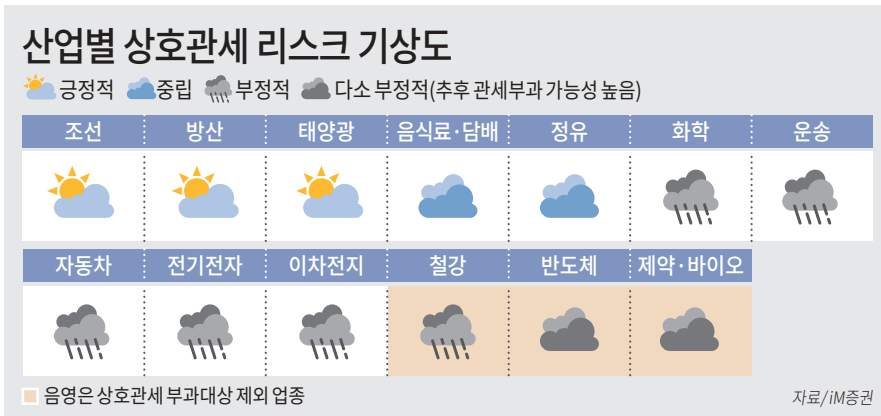
산업계 90일 유예 희바… IT·바이오 ‘흐림’, 조선·방산 ‘맑음’

반도체·바이오 ‘품목별 관세’ 우려
자동차·철강업계도 타격 불가피
조선·방산은 특수 수요처로 선방
태양광, 동남아 생산기지 덕 반사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외 다른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관세 10%만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만큼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수출품 대부분이 무관세 혜택을 받아온 국내 산업계 대부분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가운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제약·바이오 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반면, 조선, 방산, 태양광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도체·제약 바이오 초비상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반도체 업계다. 상호관세 부과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금요일(4월 11



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exception)가 아니다”며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iM증권 리서치본부는 반도체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올 2월 25% 관세가 언급된 만큼 추후 관세 부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iM증권은 “한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제품별 개별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 업체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정도는 해외 경쟁사와 큰 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한국 업체 반도체에 대한

25% 개별 관세 부과 가정 시, 한국 반도체 업체 매출을 4.3% 하락 시키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는 최악은 피했지만, 별도 관세의 영향권이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3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면제가 “영구적이지 않다”며 한두 달 내에 반도체, 스마트폰, 의약품 등에 품목별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이들 제품의 품목별 관세는 상호관세와 달리 협상이 불가하다고 했다.

iM증권은 “관세 적용 시 단기적으로 위탁개발생산(CDMO) 관련 기업의 수혜가 전망된다”며 “장기적으로는 관세

에 따른 의료체계 재편으로 현 미국 공공 의료 시스템의 핵심인 오바마케어가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시스템 전반의 압박에 최악의 경우 보험사 시장 철수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철강 등 ‘바람앞 등불’

철강, 자동차, 화학, 운송, 전기전자, 2차전지 등도 트럼프 리스크의 영향권이다 특히, 품목별 관세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철강 업계는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 업계 최대 고객이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708억달러) 가운데 미국 비중은 절반가량인 49%(347억달러)에 달한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도 82억달러다. 고율 관세 부과 땐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산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당연히 판매량에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와 관련 부품 업계는 미 증유의 위기 한복판에 들어섰다는 긴장감이 팽배하다. 자동차 부품은 이미 다수 품목이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으로 분류된 데 이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영향까지 받는다. 여기에 상호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최종 관세율은 50%를 웃돈다.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

한 수준이다.

타이어업종은 그야말로 초상집이다. 미국이 베트남에 46%라는 관세를 부과기로 하면서다. iM증권은 타이어업종에 대해 “한국타이어애펀테크놀로지의 미국매출 중 38%가 인도네시아, 금호타이어는 76%가 베트남에서 수출되기 때문에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도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다. 조선과 방산, 태양광 섹터는 관세폭탄의 큰 불뚱은 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금융 지원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선·해양·물류 산업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조사 착수 지시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중국의 해상 패권 견제에 나서면서 국내 조선사와 방산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수차례 언급해 왔기 때문이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중견기업, 통상 리스크에 ‘긴급대응’… 환율·시장 다변화 승부

중견련, 관세전쟁 전략 세미나

경쟁력 품목 중심 美 시장 진출 모색
수출 17.8%, 제조 중견社 70% 영향
관세율 조정·비용 절감 정부에 건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시킨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들도 돌파구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환율 변동성 관리, 대체 시장·생산지 마련, 정보 공유, 정책 지원 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 ‘제 30차 중견기업위원회’를 열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이 지난 16일 열린 ‘중견기업 글로벌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견련

정인교 본부장은 강연에서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한 팀, 한 목소리

(one team, one voice)’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중추인 중견기업들이 통상 변화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상의 중견기업위원들은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을 통한 관세율 조정과 더불어 ▲정부 당국의 긴밀한 정보 공유 ▲세액공제 등 생산코스트 절감 지원 ▲대체 수출시장 확보 등 단계적 위기 극복과 중장기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선 과제들을 건의했다.

전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공동으

로 ‘중견기업 글로벌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 환율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높은 한미 금리차, 내수 부진, 대내 정치 불확실성 등 추가적인 요인으로 여타 국가들보다 더 큰 불확실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내외 환경 변화 추이를 살펴 공격적인 경제활동보다는 부채 관리나 재무건전성 강화 등 안정성 기반을 강화해 실기의 여지를 줄이는 한편, 전자제품, ICT, 배터리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중견기업들은 우리나라 수출의

17.8%를 담당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제조 중견기업 가운데 70% 이상이 미국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노출돼 있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최근 5년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이 중견기업의 가장 큰 수출 애로로 지목될 만큼 환율은 기업의 단기적 손익은 물론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미국의 중국 배제에 따른 품선효과와 명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업종별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정인교 “2분기부터 타격 본격화… 수출기업 비상지원 돌입”

산업부, ‘수출지역담당관회의’ 개최
자동차·기계 부진에 대미 수출 2% ↓
“관세119·보험료 할인 현장 맞춤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하는 관세가 2분기 수출부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오후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주재하며 “2분기 수출부터 실질적으로 미 관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관기관들과 함께 비상체제로 지역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주요 시장별 수출 상황

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정 본부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전대미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업계도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해 2.1% 감소한 1598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반도체(+26%)·컴퓨터(+92%)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1%)·일반기계(-22%) 수출이 감소하면서 202억달러(-2.0%)가 줄었다.

대중국 수출도 반도체(-12%) 수출 감소로 석유화학(+3%)·무선통신(+40%)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288억달러(-6.7%) 감소했다.

반면,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

34%), 선박(+31%) 등의 호실적으로 285억달러(+6.4%) 증가했고, 대중동(48억달러, +3.4%), 대인도(46억달러, +0.9%) 수출도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에 수출지원기관들은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무보 무역사업본부장은 “관세피해 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및 보험한도 확대, 수출 중소·중견 기업 대상 제작자금 대출보증 확대 등 수출금융으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관세119를 통해 수출 기업 현장애로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대체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내 금값 한돈 65만원… 3개월 새 22% ↑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일파만파’
국제 금 가격, 온스당 3346.4달러

국제 금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100달러 넘게 뛰어올라 온스당 3300달러를 넘겼다. 원화 환산 가격으로는 한 돈에 57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같은 날 국내 금 현물 가격은 한 돈에 65만원을 넘겨, 연초 대비 20% 넘게 상승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106달러(3.27%) 급등한 1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346.4달러(약 475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월 초 가격인 2901.1달러와 비교해선 15.3%나 올랐다.

같은 날 국내 금 가격 종가는 g당 15만1454원을 기록했고, 실물 금(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거래 가격도 한 돈(3.75g)에 65만원을 넘겼다. 올해 초 국내 금 실물 가격은 1돈에 53만원 수준이었는데, 3개월 만에 12만원(22.6%)나 뛰어 오른 것이다.

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서, 통상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 가치가 급락하는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5개 국가(한국, 일본을 비롯한 56개의 개별 무역국, 그리고 유럽연합)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에는 상호관세 부과 후 13시간 만에 90일 간의 관세 유예를 발표했지만, 중국에는 예외적으로 145%의 징벌적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신승진 기자 asj1231@